구원 받아도 삶은 뒤죽박죽

(이사야 45:1~25)

15.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6.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17.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8.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19.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구원 받아도 삶은 뒤죽박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구원 받아도 삶은 뒤죽박죽'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된 상황을 가리켜 '난장, 난장판'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난장(亂場)은 시골에서 열리는 장입니다. 3일장이나 5일장 또는 7일장처럼 정해진 장날 이외에 며칠간 임시로 개설되는 장을 말합니다. 주로 특산물이 집산되는 시기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 난장이 열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기 쉬워서 온갖 놀이패가 나타나고 투전꾼이나 건달들이 모여듭니다. 각종 연희가 벌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도박과 싸움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습에 빗대어 시끌벅적하고 정신이 없는 무질서한 상황을 난장판으로 일컫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난장판 같고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본래 인생의 과정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운명론은 아닙니다. 운명론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운명대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은 하나님을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질서 잡힌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평생 내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 뜻대로 정한 임시장이고 특별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소원해서 벌리

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산물이 집산하는 시기에 난장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일들을 내 마음대로 벌릴 때에 인생은 뒤죽박죽 난장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에 대해서도 예정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임시장을 열어 자녀의 인생을 조율해보고자 합니다. 이럴 때에 자녀의 인생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온갖 일들이 발생하는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위인들이나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기 뜻대로 계획해서 질서정연하고 번영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선민의 삶조차 왜 엉망진창 뒤죽박죽의 삶이 되는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질서 잡힌 듯 사는 이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 잡힌 삶의 핵심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160년 뒤에나 있을 바벨론에서의 포로귀환을 배경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BC.539년에 바벨론은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 망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포로귀환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BC.538년부터 포로로 잡혔던 선민들이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 사건을 무려 16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100년 뒤에 나라가 망하게 되리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포로귀환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일을 배경으로 선민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해방과 구원의 사건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고레스를 기름부음 받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레스는 기름부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표현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구별하신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라는 말도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고레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 하는 자로써 이사야는 이 고레스를 통해 해방과 구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160년 뒤에 있을 포로귀환의 예언을 통해서 인류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단순하게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요?
조직신학에서도 구원론과 창조론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언급하며 창조주이심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귀환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포로 된 상태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예언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창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원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에 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또 멸망에서 구원받거나 천당에 간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고 사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았지만 그 능력과 영향력을 삶에서 확인할 길이 없고 확인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점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것뿐이지 삶의 모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선민 남 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미래에 있을 망함과 포로 됨과 해방을 이야기함을 통해 당대의 사람들을 깨우치고자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민이랍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는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깊은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수면에서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셔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갑니다. 결국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밀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질서와 결실과 광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밀어내고 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억제되고 밀려났을 뿐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났을 때에 바닷물이 억제되어서 담장처럼 쌓였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질서와 결실과 광명이 가득하도록 창조된 이 세상 안에서 유독 섬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의 마음에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남아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만두 같은 모양입니다.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가 인격입니다. '나'라는 의

식이 만두피가 되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속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나 나비나 나무에도 하나님의 뜻은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바라보면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태양도 달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백합화를 보시며 아버지께서 입히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백합화는 그렇게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격 안에는 태초에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에 대해 결정권이 없습니다. 원숭이도 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은 인격적인 상대자로 지으시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억제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좋아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해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를 극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인격체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권의 증거가 바로 마음에 남아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마음에서 이것들은 억제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삶은 이루어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예정에 없던 난장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계획과는 상관없는 인생의 난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난장을 열어서 인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서 인생이 난장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마음에 담게 됩니다. 이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 안에 자녀를 들여놓자 사랑이라는 이름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은 정답일 수가 없고 결실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개입하면 할수록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난장을 펴는 셈입니다. 난장이 열리면 온갖 난봉꾼과 사기꾼과 투정꾼들이 몰려들듯이 자녀의 인생도 뒤죽박죽이 되어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좋아하는 대로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구원이 임하지 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진 인간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예정에 없던 난장이 벌어지면서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히틀러나 네로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온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퍼트립니다. 이러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차라리 권력은 주어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한편 세상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도 질서 잡힌 듯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뒤죽박죽 난장판이 되면 오히려 후회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와중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당장은 질서 잡힌 것처럼 보이는 삶일지라도 결국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끝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난장판이 되는 편이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필요로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는 의미의 구절이 8번이나 반복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는 히브리어로 '오드(עוֹד, 'ō-wḏ,)'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부정어와 함께 쓰이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신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신, 사람, 사물, 추상적 가치까지도 포함하여 내 마음에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마음에는 배우자 돈 애인 등을 결코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끌어들인 대상에 대해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난장판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나는 그의 인생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지배당하며 하나님의 예정에 없는 일들을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돈을 벌려고 해도 삶은 난장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돈 문제에 대해서도 예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돈을 벌겠다는 판을 벌림으로 인해서 삶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갑니다.
구원은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이것들은 억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대상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삼켜질 뿐입니다. 내가 사랑한답시고 마음에 끌어들인 것들에 대해 아무런 결실도 없고 모두 틀린 말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레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바로 마음 안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해 우리를 죽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로 접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끌어들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마음에는 세상을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하여 들여놓든지 내 마음에 존재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사랑하는 것들과의 관계는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생겨난 원죄의 체질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질은 자꾸만 마음에 좋아하

는 세상 것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싫어하는 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하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해결하려 할 때에 오히려 삶은 더욱 뒤죽박죽이 됩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해봐야 공허한 결과만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는 그 어떤 대상을 들여놓아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장악될 뿐입니다. 오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억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3일장 5일장 7일장처럼 예정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삶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을 등지면 누가 돌봐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삶에 대해 관여하면 할수록 그만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지배됩니다. 나는 무조건 십자가에서 내 마음에 들여놓은 대상들에 대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죽어야만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려는 대상들이 돈일 수 있습니다. 혹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대상들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러한 대상들을 마음에 담을수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비로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 몸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사업을 비롯한 모든 대상들에 대해 하나님이 정하신 장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정에 없는 난장은 열려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장날이 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흥겹고 기쁘고 유쾌한 장날의 삶이 우리 인생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를 배경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담을수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구약시대에는 번제였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온 마음을 번제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죽은 것으로 생활화하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더 이상 뒤죽박죽의 난장판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에 대해 철저히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모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통통 튀기면서 살되 혼란이 없고 뒤죽박죽이 없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름다운 것들로만 삶의 내용이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